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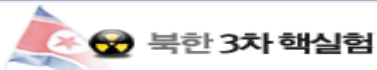
중소기업간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

- 일부 법안 개정 -

국제협력위원회

대표자-이종원 위원

박서현, 안지연, 안은솔, 김초희, 강소현, 박민주,
김찬호, 김태영, 김동현, 김도희, 민대규, 박세령,
강지유, 윤지원, 오현지



북한 3차 핵실험

전체 정치 경제 사회 IT·과학 문화·연예 라이프

핫이슈 포토 칼럼

Hot Keywords 북한 북핵 안보리 박근혜 정부 프로포폴

· 뉴스 > 경제

경제

가+ 나- 이메일 인쇄 스크랩

t 0

f 0

0 0

0 0

[중소기업 하기 좋은나라] 中企 올리는 ‘손톱 밑 가시’

중소기업 5천여 개가 모여있는 수도권의 이 공단에는 공장 판다는 광고가 여기 저기 붙어 있습니다.

활기 잃은 우리 중소기업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축약하는 요즘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9988이란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우리 나라 일자리의 88% 가까이를 중소기업이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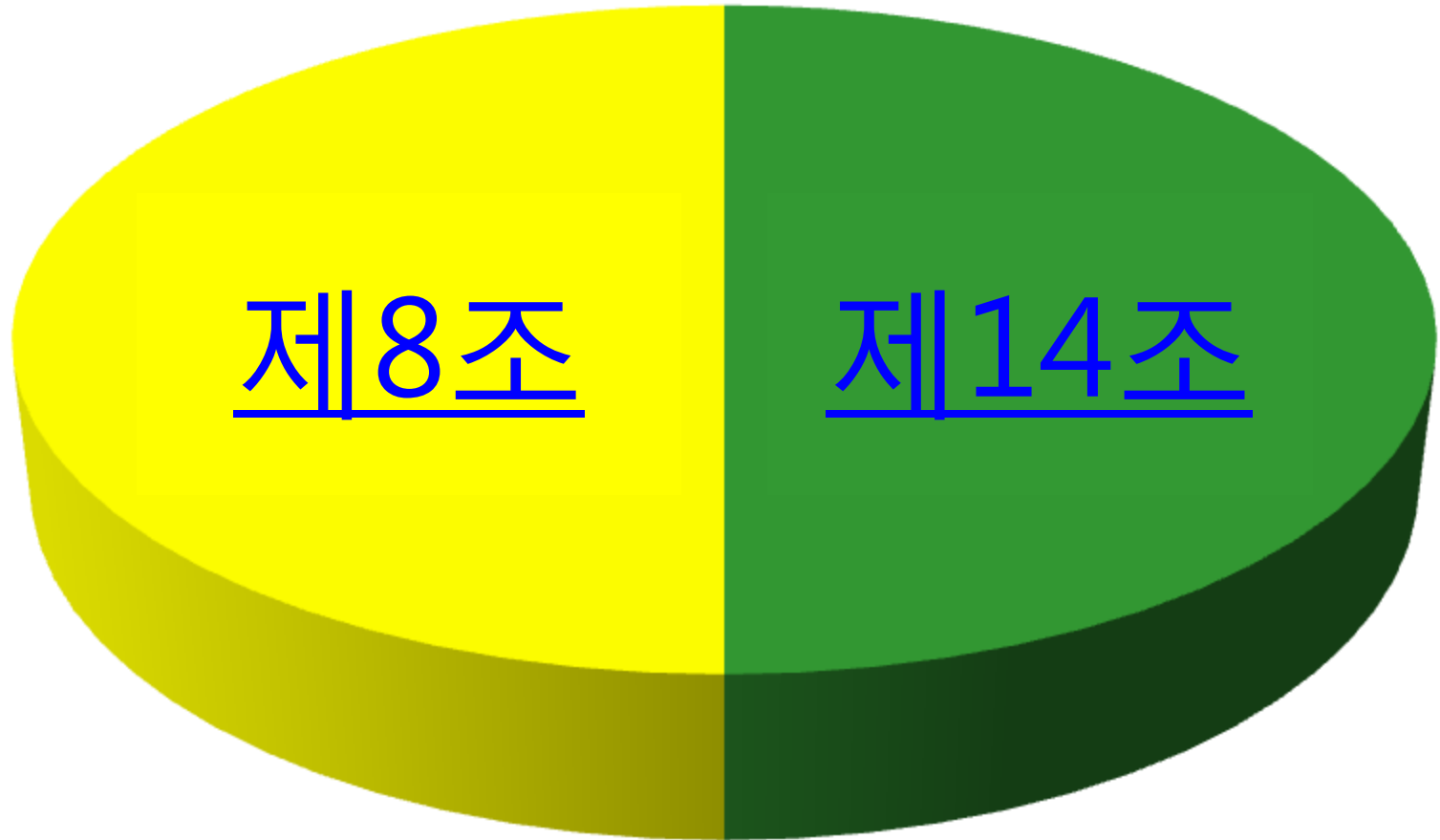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핵심 화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습니다.

KBS는 우리 나라가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방안을 올 한 해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든 걸림돌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봅니다.

양성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현행

-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사이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국외 중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상시 마련해야 하며 예산을 할당할 수 있다.

현행 제 14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항목

- **‘강소기업 국제교류박람회’**를 국가공식행사로 법제화
(연 1회 대규모 국가행사로 정기적으로 개최)
- 위 박람회에서 **신시장 정보교류**
- 위 박람회에서 공동기술개발 이후 **국제특허공유(Cross-License)**를 합의함으로써 세계시장을 함께 선도

현행 제 14조 ①

추가항목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 박람회에서 기업간 **양자협력과 다자협력** 등 다방면의 형태로 공식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위 박람회에서 국외 기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초청하여 박람회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교육을 제공**

• 위의 모든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협력

현행 제 14조 개정 (제②항 신설)

박람회 준비와 주요일정 및 국내외 참가기업의 범위에 관련하여 정부와 중소기업들의 원만한 공식적 합의가 가능하다.

1. 현재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중소기업은 위 박람회의 **참가우선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현행 제 14조 개정 (제③항 신설)

정부는 “강소기업 국제교류박람회”의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일자리의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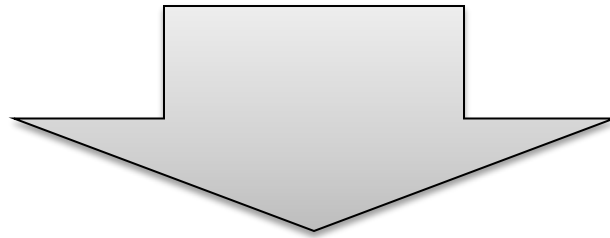
2. 대기업에 치우친 산업구조



대기업의 단순한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자립능력 상실.

3. 미래의 지속성장 동력원

4. 중소기업의 국제진출 발판 제공의 필요성.



본 법안의 절대적 필요성!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손에 국익증진이
달려있습니다.**

